충남도, 멜론 덩굴마름병 예방적 방제 필수

도 농기원, 최근 기온 상승과 큰 일교차로 병 발생 가능성↑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7일 멜론 재배 농가에 덩굴마름병 예찰 및 예방적 방제법을 안내했다. 멜론 덩굴마름병은 지제부(땅가 줄기)와 줄기, 잎, 잎자루 등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이다.

지금처럼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하우스 내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병원균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예방법은 예찰을 자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병든 부위 발생 시 즉각적인 등록약제 살포 및 포장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병 발생 시 부위별 주요 특징으로는 지제부는 초기에 수침상 병반을 형성한 이후 퇴색되며, 그 위에 갈색 또는 검붉은 점액이 나타난다.

▲멜론덩굴마름병예방적방제필수

잎에는 담황색 또는 갈색의 대형 부채꼴 모양 병반이 형성되며, 병이 진행되면 잎이 시들고 포기 전체가 말라 죽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방제는 등록 약제를 활용한 예방적 방제를 실시해야 효과가 높으며, 하우스 환기, 적정 온도 유지 등 재배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곁순 제거 등 전정 작업 시에는 상처 부위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맑은 날 오전에 실시하고, 작업 후에는 등록 약제를 줄기 밑부분까지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권미경 과채연구소 멜론팀장은 "덩굴마름병은 초기 방제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평창군, '미백 2호' 옥수수 채종 단지 선정

평창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옥수수연구소가 추진하는 '미백 2호' 옥수수 보급종 채종 단지에 선정되며 우량종자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번 채종 단지는 방림면 방림2리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지역 내 17개 농가가 참여해 약 10ha 규모로 운영된다. 참여 농가들은 재배 안정성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백 2호' 품종의 보급종 생산을 맡아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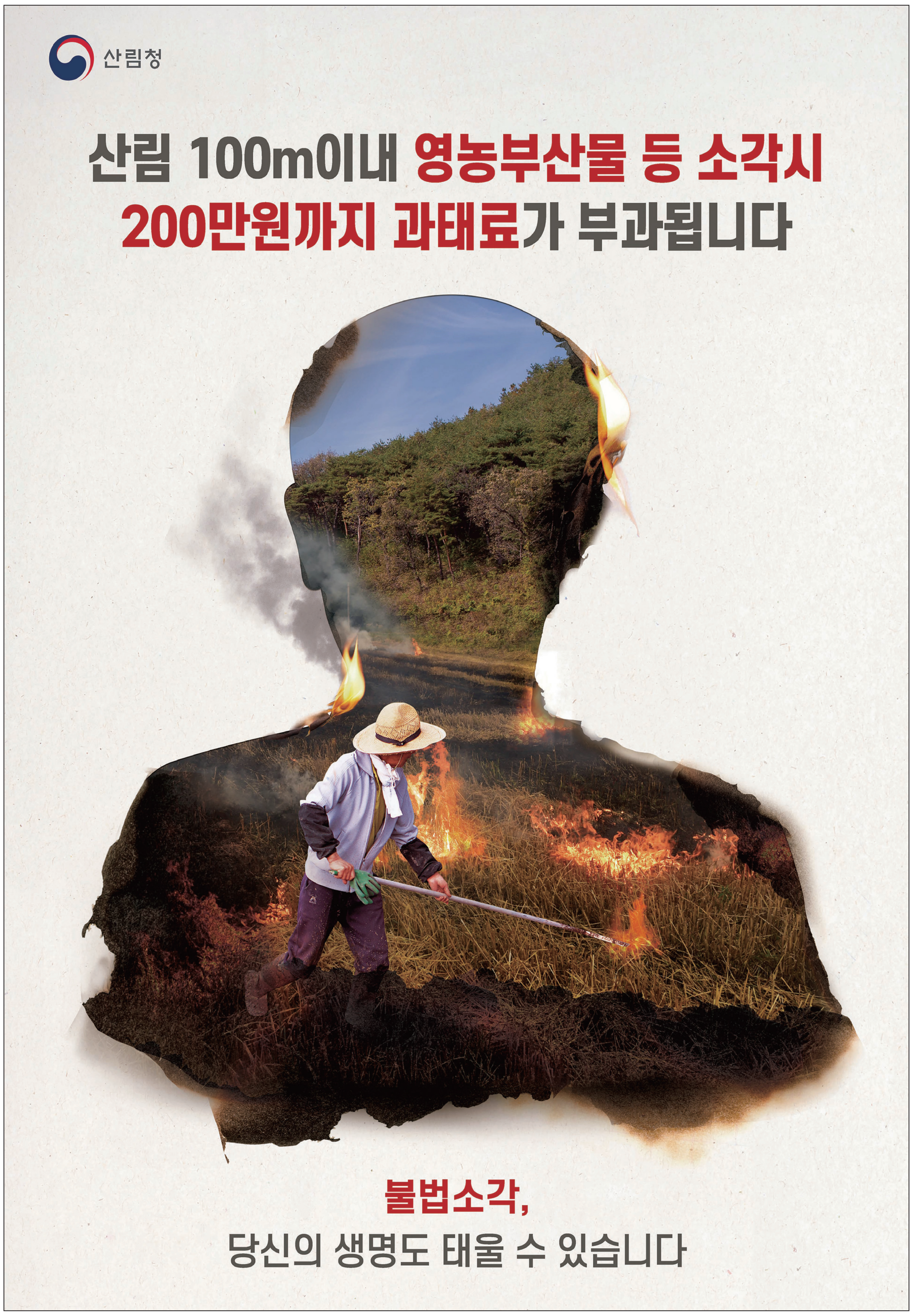
앞서 지난 4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옥수수연구소에서는 채종 단지 선정 지역 관계자와 참여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매 약정식을 열고, 채종 단지 운영 방향과 종자 생산·수매 계획 등을 공유했다. 본격적인 정식 작업은 5월 중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채종 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배 기술 지도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 종자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지역 농가 소득 증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미백 2호' 보급종 채종 단지 선정은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 옥수수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해 참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예천군, '2026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기본조사 및 심층 조사 단계별 밀착 추진

예천군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18일부터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 조사하며,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조사 규모는 약 7만 4천 필지(약 12,738ha)에 달하며, 5월부터 7월까지는 소유 관계, 실경작자 여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심층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농지 취득자(상속·국가·지방정부 제외) ▲최근 10년(2016. 4월~2026. 3월) 내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 취득자(농지대장 상 소유자 2인 이상) 취득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위법 의심 농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농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필지에 대해 내년부터 법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선발하고, 15일 지침 및 요령, 시스템 사용 등의 교육을 마치며 원활한 조사 추진에 힘쓰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전수조사 규모를 고려할 때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지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전수조사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 통합 플랫폼 실증 추진

에너지 효율 높이고 농가 전력비 절감 기대

고흥군은 전남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이 미래형 스마트농업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직류 기반 지산지소형 스마트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에너지 효율 검증과 실증을 전남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1억 원(국비 64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교류(AC) 방식은 전력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직류(DC) 기반 시스템은 변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력 효율 향상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팜 냉난방과 환경 제어, 양액 시스템 등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농가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별 전력 생산·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남는 전력을 공유·거래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순환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티이에프를 비롯해 이음아이씨티, 광안이앤씨, GS건설㈜,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 참여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함께 수행한다.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관계자는 "전남 고흥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스마트농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한 미래형 에너지 모델"이라며 "농가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테크노파크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촌 일손 돕기 동참

밀양시농업기술센터는 15일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상남면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정곤 밀양시장 권한대행과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6,000㎡ 규모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적과 작업을 지원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밀양시는 매년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봄 영농철과 가을 수확기에 맞춰 공무원과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봄철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추진 기간'으로 지정해 시청 산하 전 부서와 읍면동이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에 농촌 일손 돕기 추진센터를 운영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지원 희망자를 연계하고 있다.

이정곤 밀양시장 권한대행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직원들의 참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등 농촌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천안시농기센터, 벼 못자리 관리·모내기 현장지도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 못자리 관리와 적기 모내기 실천을 위해 현장지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못자리 기간 동안 큰 일교차로 냉해와 입고병, 뜸모 등 병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육묘장과 농가의 모판 상태를 점검하고, 온도 관리와 병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성거읍벼 못자리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방문해 현장지도를하고있다.

이와 함께 천안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삼광과 친들 등 중만생종의 모내기 최적기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인 만큼 적기 모내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 모내기는 무효분얼 증가로 통풍이 불량해져 병해 발생이 늘어날 수 있고, 기온 상승에 따른 등숙기 고온으로 벼알의 양분 소모가 많아질 수 있어 안정적인 수량과 품질 확보에 불리할 수 있다.

센터는 고품질 쌀 생산과 비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료사용처방에 따른 적절한 비료 사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벼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